

# '전북·새만금 혁신 심포지엄' 성료

### 전북자치도, 제3회 JSIS 개최... 각계 전문가, 도내 바이오산업 미래전망 논의 등 김관영 도지사, "전북자치도 바이오·이차전지·방위산업 중심지 도약 기대"

전북특별자치도는 1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전북연구원 및 (사)신지식장학회와 공동으로 제3회 JSIS(전북·새만금 혁신 심포지엄, Jeonbuk·Saemangeum Innovation Symposium)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전북의 바이오산업 혁신 방안을 주제로, 바이오 유관기관 및 관련 기업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해 전북 바이오산업의 발전 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심포지엄은 정만기 전(前)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레드바이오와 그린·화이트바이오산업을 주제로 한 세션을 이어갔으며, 바이오산업을 통한 전북의 성장 및 선도적 역할, 그리고 지역 경제와 산업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 모색 등에 대해 열린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기조연설자로 나선 정만기 전 차관은 전북의 강점과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특화 전략 및 틈새시장 공략 등 전북의 바이오산업 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세션 1에서는 권덕철 전북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양지훈 (주)아이노를 상임고문, 최태원 원광대학교 교수,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김형철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바이오PD 등이 참여해 전북의 레드바이오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자들은 AI융합 정밀기술, 화학에서 바이오약제로 중심축이 이동하는

레드바이오산업의 거대한 흐름에 맞춰, 재생의료 특화 조지공학기술개발 전략과 AI와 바이오를 결합한 정밀 바이오 기술 개발 등 시대 트렌드에 적합한 레드바이오산업 발전전략 제시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았다.

세션 2는 이은미 바이오융합원장이 좌장을 맡아 최인규 김제지원순환센터장, 문지홍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김덕기 GS칼텍스 기술원

구소 바이오솔루션 팀장, 유병완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 등이 참여, 전북의 그린바이오와 화이트 바이오 산업의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특히, 최인규 센터장과 문지홍 연구원은 공동으로 발표한 '전국 최초 우분고체연료 기반 에너지 전환'은 전북이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우분고체연료화를 통한 에너지전환 방안으로,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모델임과 동시에

친환경 바이오산업 육성전략인 점에서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 밖에도 김덕기 팀장은 '화이트바이오 산업화 동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바이오 소재 산업의 최신 트렌드와 전북의 산업화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전북이 특별자치도로 거듭나며 바이오, 이차전지, 방위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다. 이는 지속 가능한 지방시대를 이끄는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전북이 바이오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게 특화된 혁신방안에 대해 열린 토론을 펼쳐 달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사회서비스 산업박람회 첫 개최 13일 전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회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 산업박람회' 개막식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을 비롯해 사회서비스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전북특별자치도 명장 3인' 선정

### 공예 분야-박광철·건축 분야-양병준·이·미용 분야-오형자

전북자치도가 도내 산업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기술자를 전북특별자치도명장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영예의 명장은 공예 분야 박광철(52, 팔봉도자기공방 대표), 건축 분야 양병준(50, 국립축산과학원 공업주사), 이·미용 분야 오형자(64, 수앤미헤어클럽 대표) 등 세 명이다.

전북자치도는 13일 도청 회의실에서 명장 수여식을 열고 김관영 도지사가 명장증서와 명패를 직접 전달하며, 숙련기술 발전에 헌신한 명장들의 공로를 치하했다.

공예분야 박광철 명장은 29년 이상의 도자공예 경력을 보유한 장인으로, 지난해 김제시 제1호 명장에 선정된 바 있으며 도내 공예문화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박광철 명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과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도예 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축분야 양병준 명장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21년 동안 동물·기계설비 운영을 담당해 온 기술직 공무원으로, 에너지 절



감과 공정개선에 이바지해 왔다. 양 명장은 "더 높은 기술적 가치를 창출하고 후배 양성에 기여하겠다"고 선정 소감을 전했다.

이·미용분야 오형자 명장은 미용업에 30년간 종사해온 전문가로, 미용 인재 양성을 위해 무상으로 기술을 전수하는 등 후학 양성에 힘써왔다. 오 명장은 "앞으로도 이·미용 인재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관영 지사는 "각기 다른 분야에서 20년 이상 기술 발전에 헌신해 온 명장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며, "지역을 대표하는 명장으로서 기술 혁신을 이끌고 후학들에게 헌정 국립축산과학원에서 21년 동안 동물·기계설비 운영을 담당해 온 기술직 공무원으로, 에너지 절

/이만호 기자

## 전북자치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출범

###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위한 정책 자문·심의 본격화

전북특별자치도는 13일 도청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첫 회의를 통해 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자문 및 심의를 본격화했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경제·사회·환경 분야의 조화로운 성장을 목표로 구성된 자문기구로, 당연직 위원 7명과 위촉위원 13명으로 이루어져 총 20명으로 출범했다. 위원회의 임기는 2년이며, 앞으로 전북도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대해 자문과 심의를 제공하여 장기적인 발전 방향 설정에 중요한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2022년 7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 이후,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경제·사회·환경 전반으로 확대하며 이를 환경산림국에서 기획조정실로 이관했다. 또한, 2023년 '전북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제정해 지속 가능 발전 업무를 본격 추진해오고 있다.

이번 첫 회의에서는 최병관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위원회를 대표할 공동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전북자치도 지속가능발전 추진현황 및 위



원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회는 앞으로 전북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변경 시 심의에 참여하며, 정책의 실행력과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례와 행정계획을 사전에 검토하여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생명경제와 지속가능성을 핵심 가치로 삼아, 미래 지향적 발전을 실현하는 데 위원회의 자문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전문가와 함께 지속적인 자문과 조언을 통해 전북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그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도, 전북특별법 333개 특례 시행 앞두고 준비상황 최종 점검

### 연초 131개 조문 75개 사업화 과제 확정·특례실행 준비... 법시행일 49건 즉시 시행·2025년 이후 26건 시행 예정 올해 새만금고용특구 지정 시작으로 농생명산업지구·문화산업진흥지구·산림복지지구 등은 후보지구 선정 예정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3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올 해 도정 역량을 집중해 추진한 전북특별법 특례실행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김관영 도지사 주재로 진행된 보고회는 지난해 어렵게 확보한 333개 특례들의 12월 27일 본격 시행을 불과 1개월 앞두고 차질 없는 실행 준비가 되어 있는지 추진상황을 최종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자치도는 그동안 전북특별법 개정 법률 131개 조문을 75개 대상 사업으로 선정 후 기본구상 과제 26건, 기본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 24건을

추진하였고, 조례 컨설팅을 통해 30건의 조례 제·개정을 완료하였으며 연내 14건을 완료할 예정이다.

75개 사업 과제 중 이러한 준비 과정을 통해서 2024년 내 49건, 2025년 이후 26건이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요 지구·특구·단지 조성 특례 중 2024년에 '새만금 고용특구'가 시행과 동시에 가장 먼저 지정되고 '농생명산업 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산림복지지구' 특례는 후보지구를 선정하고 2025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지정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민테크육성지구', '친환경산악관광지

구'도 2025년 상반기 내 지구 지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전 시군에 공통 적용되는 특례 외에 각 시군에 맞는 특화 사업을 시행 준비 초기 단계부터 시군의 의견을 반영해 함께 추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또한, 전북특별법 특례가 전북자치도 발전과 성장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국조실과의 협약을 통해 평가지표 마련 등 성과평가에 적극 대응하고 특례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별 목표를 설정하고 모니터링을 통한 평가와

인센티브 마련 등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향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12월 시행령 제정과 시군, 의회, 전문가 등을 통해 발굴한 2차 입법과제 49건 특례의 부처 수용성 제고를 위해 지역 정치권과 긴밀하게 협조하며 대응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이제 12월 27일 법이 시행되면 전북이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특례들이 잘 실행되고 성과가 확산되어 도민이 직접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ail.com